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t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쾨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창세 18,20-32  
 [화답송] ..... 시편 138(137),1과 2나.2ㄱㄴ과 3.6-7ㄱㄴ,7ㄹ-8 (◎3ㄱ)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앉으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제2 독서] ..... 콜로 1,12-14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 환호송] ..... 로마 8,15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1, 1-13

### [성가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이 정진 안토니오 박 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영혼과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손 경호 베드로	이 미숙 안나 양 미숙 마리아 성소후원회
생미사	봉헌
백이백 아오스딩, 이 정현 헬레나 이 정현 헬레나 이 소정 올리아 (건강 회복을 위해) 이 상영 바오로 치유와 성가정 위해 이 부라이언, 박 수진 (영.육 건강위해) 양 세안, 양 명희 (영.육의 치유를 위해)	양 미숙 마리아 유 정옥 유스티나 김 승애 클라라 양 미숙 마리아 양 미숙 마리아 양 미숙 마리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7월24일	정동주 유스토	배수아 마들렌	김은아 미카엘라	배수아 마들렌	김종선 비비안나	최예준 사도요한	최미루 로사
7월31일	이지훈 아녜스	박기목 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안선정 마리안나	한창희 바오로	김은아 미카엘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여름철 미사 참례 시 복장과 자세

- 성당에서 미사 참례 때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슬리퍼, 반바지, 소매 없는 옷은 피하도록 합니다.
- 미사 전에 핸드폰은 미리 꺼둡니다.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 참석

- 일 시: 9월 11일
- 장 소: 뉴튼 수도원
- 신 청: 각 단체장에게 참가 신청
- \*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당 뒤편에 있는 바구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받습니다.

- 일 시: 9월 11일
- 장 소: 뉴튼 수도원

● 뉴튼 수도원 성탄트리 봉사자 초대합니다.

- 일 시 : 7월 30일 (토) 오후 1시 ~ 오후 4시
- 신 청 : [irisj@naver.com](mailto:irisj@naver.com) 또는 973-862-7933  
Please RSVP to Br. Bernardo Jee
- 조 건 : 코비드 백신 맞으신 분들

● 제6차 미 동북부 청년 '선택 주말'

- 일 시 : 9월 3일(금) ~ 5일(일)
- 문 의 : [choicenj@gmail.com](mailto:choicenj@gmail.com)
- 신청기간 : 7월 15일 ~ 7월 31일 (선착순 30명)
- 장 소 : 뉴튼 수도원

● 레지오 마리아 교육

- 일 시 : 9월 23일(금) 오후 4시 ~ 9월 25일 (일) 오후 5시
- 신청마감 : 8월 28일 (일)
- 참가비 : \$300 (선착순 30명)
- 장 소 : 뉴튼 베네딕도 수도원
- 신 청 : 신청서 작성 후 본당 사제의 서명, 각 본당 꾸리아 단장님께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D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 am ~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0:30 am ~	Korean Conf.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 이경희 (미카엘라)

[2022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루카 11, 1-13 )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주님의 기도'. '끊임없이 간청 하여라',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야기입니다. 루카는 오늘 복음의 끝에 이렇게 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청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창세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님께 다가가서 조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정의, 즉 자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 콜로새서는 '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은총의 효과를 요약했습니다. "어려운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신자들의 충만한 삶은 '성령을 받은 삶'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말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서 실망하여 기도 할 의욕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가지면 달리 더 원할 것이 없게 될 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얻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특 쓰는 영성'

## 죄인처럼

미사도 매일 참례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늘 자기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겸손해 보이고 성인이란 말을 들을 자격을 가진 분이 아닌가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감정이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소위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저평가하는 것을 부정적 자기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은 얼핏 겸손해 보이거나 사실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이라서 선뜻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과소평가해온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세포 생물이라느니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교리에서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성가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운운하면서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자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니 좋더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벗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하는 소리들은 선에서 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끈대 유머 하나 전합니다. 열심히 수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고 일 년 열두 달 늘 고행하는 자세로 사는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강론 때마다 신자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죄 짓고 사는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야단을 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고함을 쳐서 신자들은 그 앞에만 가면 고양이 앞의 쥐처럼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자는 본척만척하시고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수도자가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안 보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수도자를 보시곤 "너로구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를 외쳐대고 일 년 내내 거지같이 입고 다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머리 없는 계부로 만든 놈이 너로구나!" 하시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두들겨 패셨다는 이야기.